

홍수조절용 강행맨 단체행동 불사

시의회 한탄강댐 특위 건교부 항의방문



포천시의회 한탄강댐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는 지난 5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홍수조절용댐으로 추진중인 한탄강댐을 다목적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욱 위원장은 담양국장을 만나 한탄강댐 홍수조절용댐을 다목적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욱 위원장은 담양국장을 만나 한탄강댐 홍수조절용댐을 다목적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최대 미군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평사격장 409만평(72년조성) 및 동양최대 훈련장인 승진사격장 600만평(52년 조성) 등 1천만평 부지가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 환경오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불이익은 물론 포천도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는 "홍수조절용댐 건설은 일시적 수물면적 75%인 340만평의 토지를 활용할 수 없고 전체의 자연경관만 상실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적극 반대하고 다목적용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 4곳(약 2천142억원 소요 :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 대책 수립, 2002년3월)을 새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료시 자연히 침수위험지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추진은 더 이상의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 특별위원회는 "댐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철원군은 한탄강 댐 수물면적의 3%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의 다목적용댐으로 전환 방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수물면적 74%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시민과 포천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목적용댐 전환방지 협약서 체결

포천시와 갈등유도 치졸한 처사불과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서 논평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는 지난 6일 철원군청 대회의실에서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 총회를 갖고 '건교부 협약서 뒤에 숨은 홍계'라는 논평을 통해 건설교통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다목적용으로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철원군민을 속이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철원군투쟁위원회는 회의 후 논평을 통해 환경단체와 국민의 반대와 비판 속에서도 '순수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 개방형 댐으로 만천하에 공표한 마당에 정부에서는 뜬금없이 다목적 댐으로 용도전환 방지를 위한 협약 따위를 들먹이는 것은 가증스런 홍계를 감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리치는 이유는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한탄강댐 예산통과 부대조건으로 '주민과 협의 하면서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태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포천시가 환경오염 및 국민 혈세 낭비를 이유로 한탄강댐 건설 반대에 나섰음은 물론 수물 예정지인 연천군 고문2리 주민들이 백지화 촉구 권고대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사면초가에 빠지자 협약을 주민과 협의한 증거로 활용하려는 알박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철원군투쟁위원회는 아울러 "지난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의 술수에 속아 '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했다가 자문 전문가 5인중 3명이 정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합의의 본래 정신과 취지가 깨진 경험을 갖게 되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을 밝히며 명분과 실효성이 없는 한탄강 댐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주장 했다.

이들은 또한 "건교부가 철원군에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자유기고
박진석 목사(평화의 집 대표)

多文化 사회교육지원 필요

포천지역은 도농복합시로서 약2,000개의 3D업종인 중소기업체들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도시이다. 포천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인 공장들이 국제시장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노동현장 일에는 대부분 우리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가 필요해서 불러온 이주 노동자들 그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3년의 계약기간을 약속하고 한국에 들어온다.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한다.

기후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생활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전통문화와 단일민족만을 자랑하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의 시야를 멀리 바라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추천! 이야기 한마당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원

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자리에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무슨 돈이냐며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의 비상금이었다는데 험악한 모습이 안쓰럽다며 내일 몰래 혼자 고기뷔페에 가서 소고기 싹둑 먹고 오라고 주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을 퍼서 쥐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젯밤 남편에게서 만원을 받은 아내는 뷔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 내년에 학교에 간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냐" 하고 절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만원을 손녀에게 세배돈으로 줍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 지연이는 마냥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세배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냅니다. "엄마, 책가방 얼마예요?"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 빙글 웃습니다. "왜? 우리 지연이 학교 가고 싶냐?" 지연이는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세배 돈으로 받은 만원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나 예쁜 책가방 사줘요"

요즘 남편이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안하던 잠꼬대까지...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경질 꼬가리 뿐이라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주머니에 넣어 딸 지연이가 맡긴 만원을 넣어 줍니다. (문의 011-342-5834)

이제는 훌쩍 자라 내년에 학교에 간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냐" 하고 절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만원을 손녀에게 세배돈으로 줍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 지연이는 마냥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세배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냅니다. "엄마, 책가방 얼마예요?"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 빙글 웃습니다. "왜? 우리 지연이 학교 가고 싶냐?" 지연이는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세배 돈으로 받은 만원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나 예쁜 책가방 사줘요"

요즘 남편이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안하던 잠꼬대까지...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경질 꼬가리 뿐이라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주머니에 넣어 딸 지연이가 맡긴 만원을 넣어 줍니다. (문의 011-342-5834)

시인의窓

몽둥이
안익수

그 곳에 가면 개관이다

강 건너 객(客)은 사흘치 일당을 주물럭거리다가 물이 오른 창문을 엿듣다가 바람의 힘줄을 온몸으로 당긴다 발가벗은 유행가도 꽃꽂이 서서 구멍이 부르르 펴피질이다 "분홍불 피운 사람, 개고기 사시오" 장터는 살판이다 발기한 풍선이 전뿔대를 끌어안고 한나절 숨 고르다 날면 아마 사타구니 자갈밭에는 꽃뿔한 수사과가 익을 거다 가끔 빨간 인형은 지폐를 들고 사발지느러미로 물장구를 칠지도 더러는 낫알이 수도꼭지에 오르가슴을 씻을지도

다시 영자의 부루스는 탕자나무 그늘에 앉을 거다

때로는 동물이 인간의 생명을 영장하는데 지대하게 동역해 왔다. 그러나 그들과의 사회적 가치와 경계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아찌 인간은 동물적 본성과 닮아 살로 추구하는 욕망의 불을 드문드문 놓고 싶어하는가.

왜 꽃가지를 함부로 꺾어 대던가. 사람은 흙에서 풀과 어우러져 하늘로 살아 가자 마땅함이 아닌가. 더구나 삶의 궁극적 이상을 두고, 문명의 이기로 수단을 들어 다투기에 혈안이 되며, 자연의 섭리로 회해할 그곳은 늘 목마르다.

사람은 보통 피로 물질 탐하기 일쑤지마는 손과 발로 바람을 손질할 일이며, 입으로 탐을 씹기보다는 가슴으로 다리를 놓아, 서로 소통하는 따뜻한 동지를 만들어 갈 일이다.

그래 어떠한 경우라도 죄절과 포기가 아닌 희망세상21세기의 사다리를 올라야 한다. 오늘 인간의 꿈과 이상이 얼마나 경이로우냐. > (시인 안익수)

침대문화의 혁명! 리더 에어쿠션 매트

사옥전경

야외에서!

물놀이용으로도!

솔레노이드

은열 · 음전위 안마 리듬 마사지

오늘 하루의 피로를 전문안마사 같은 안마매트 위에서 풀어보세요.

리더 메디컬 ☎ 1688-884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69-1